

하노이: 흐림, 공해 낮음 최대34도, 최저 26도
 다낭: 맑음 최대32도, 최저 26도
 서울: 맑음, 최대27도, 최저 18도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3,280.00 / 팔 때: 23,310.00
 (Vietcombank 2023.05.29 08시 공식 기준)

한국, 베트남 및 14개국 참여 IPEF 협정 체결

'공급망 中견제', 美 주도 출범 1년만에 첫 협정 타결...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등 합의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현지 시간)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IPEF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비상 소통 채널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노동자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도 다루기로 했다. 지나 리 문도 미 상무장관은 "IPEF 회원국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반도체·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창설을 선언한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PEF 회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참여가 자칫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 왕윈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26일 캐서린 타이 미 부역대대표부(USTR) 대 표를 만나 중국을 견제하는 IPEF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른바 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국(AP4)과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IPEF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는 등 미중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대

신 디리스킹(탈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국과 동남아 국가 등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이 포함된 만큼 중국에 대한 IPEF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내걸고 출범시킨 협력체다. 지나 리 문도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협정 합의 타결 사실을 전하며 "14개 회원국이 공급망에 대해 첫 국제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공급망 혼란 시 회원국들이 대대 공습과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

원 무기화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IPEF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과 광물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위원회에 대해선 "공급망에 중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핵심 광물 채굴 확대 등 IPEF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는다"면서 "한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지원 보유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국에 대한 IPEF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내걸고 출범시킨 협력체다. 지나 리 문도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협정 합의 타결 사실을 전하며 "14개 회원국이 공급망에 대해 첫 국제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공급망 혼란 시 회원국들이 대대 공습과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

(동아일보 2023.05.29)

코로나 이후 한국인 해외 카드 이용 건수, 제주도는 줄고 베트남·일본은 '급증'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이 급증하자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제주 지역 카드 이용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줄어든 제주도 내 결제 건수는 베트남·일본 등 해외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한카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4월 카드 이용 건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2022년 125까지 치솟았던 제주지역 이용 건수는 올해 110 수준으로 내려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79까지 줄어들었던 이용 건수는 2021년 101, 2022년 125로 뛰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회복을 보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이용 건수 급감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 이용 건수는 작년 104에서 올해 78로 내려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크게 줄었고, 30대도 작년 126에서 올해 106으로 이용 건수가 급감했다. 다만 40대(125→118), 50대(145→135)는 소폭 감소했고 60대 이상(156→162)은 오히려 이용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베트남·일본·미국 등 주요 해외 여행지 국가 내 이용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베트남(128), 일본(121)은 코로나19 전보다 이용 건수가 늘었고, 미국(97)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작년 카드 이용건수는 베트남 27, 일본 16, 미국 88 수준에 그쳤었다. 베트남·일본 이용 건수 증가 폭은 특히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베트남 이용 건수는 31에서 146으로, 일본 이용 건수는 작년 15에서 올해 130으로 급증했다. 20대도 베트남(12→108)과 일본(13→108)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은 이용 건수를 보였다. 그외 40대(일본 12→110, 베트남 36→134), 50대(일본 20→133, 베트남 25→112), 60대(일본 40→157, 베트남 18→112)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향신문 2023.05.28)

[주목] 북부 중부지방 이번주 폭염 예정

월요일부터 베트남 북부와 중부 일대에 27~36도를 기록한 후 수요일부터 다시 찾아와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Vnexpress가 28일 보도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지난 한 주 동안 폭우를 동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를 피해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월요일부터 서쪽에서 저기압이 올라오면서 라이쩌우, 디엔비엔, 손라, 호아빈 지방과 하노이를 포함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 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가 전망했다. 기온은 최고 35~3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수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기 예보 서비스인 아쿠웨더는 하노이 기온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27~36도를 기록한 후 수요일부터 최고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라오까이 사파는 고산지대의 기온은 주중 밤에 28도로 가장 높다가 주말에 23도로 점차 낮아질 예정이며, 야간 기온은 17~19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 지역도 월요일부터 더워져 낮 최고 기온이 35~3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중부지방의 폭염은 금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남부와 중부 고원 지역은 몬순 바람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이며, 국가 예보센터는 저지대 지역 홍수를 주의보로 발령했다. 중부 고원의 최고 기온은 약 32도, 베트남 남부의 최고 기온은 34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Vnexpress 2023.05.28)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DAILY AD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카카오페이 "신짜오베트남" (http://pt.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은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문의 E.info@chaovietnam.co.kr
 M.079. 283. 2000 | T. 028. 3511. 1075 / 1095



주방 수전전용 직수형 정수기

대용량 11단계 정수 필터

렌탈: 450,000 (VND)
 일시비: 4,500,000 (VND)
 1년치 필터 + 주방수전 싱크에드

녹물 염소 중금속 제거 100%

NSF, ISO, K-water, WQA, AHA

고객님들께 추천 드립니다

- 01 법률 국물 설거지를 깨끗한 물로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 02 잦은 필터교체 없이 6개월에 한번 손쉬운 자가필터 교체를 원하시는 고객님들
- 03 365일 녹물 전혀 보지 않고 생활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K-water 필터는 LG 정수기에 납품하는 동일 회사의 필터 소재를 사용합니다

무료설치

국내 검사 시험 및 인증

호치민 081.455.3849

하노이 079.251.9055

kwatervn www.kwatervn.com

Ch 신짜오베트남

+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 타령

한주필 칼럼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 더러'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갑니다.

새해를 맞은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월로 반년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차면 나이 숫자만큼의 속도로 시간이 간다고 하지요. 20대는 20킬로로 가고, 40대는 40킬로, 60대는 60킬로로 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더디 가고, 나이가 들면 잡아두고 싶은 시간이 속절없이 달려 나갑니다.

어차피 잡을 수 없는 세월은 남의 일인 양 내버려둔 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 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때로는 이름 모를 그리움에 가슴이 시큰해지지만, 당장은 별다른 문제 없이, 별다른 갈등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삶에 고마운 인사를 보냅니다. 참 맥없는 소리지요. 특별히 이루어야 할 계획도 없고, 희열의 감정을 경험할 만한 즐거움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용인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젊은 시절에도 그리 열정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 듯합니다.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나만 겪은 어려움도 없었지요. 이룬 것도, 가진 것도 별로인 채 세월만 부지런히 보내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동기가 없으면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어렵게 도전해야 할 일은 피하며, 자신과 타협하며 간신히 자리를 지키며 그야말로 적당히 살아온 셈입니다.

그렇게 큰 충동 없이 세월을 보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이가 된 후에 문득 젊은 시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두려움, 공포에 대한 재 도전의식이 슬며시 피어납니다. 더 늦기 전에 풀고 싶은, 맺힌 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차니 젊은 시절에 느끼던 두려움, 불안, 공포가 별다른 위협으로 생각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을 되새기며 다시 의기를 세우려 해도 이미 세월이 훌쩍 가벼린 현실을 자각합니다. '세월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니 뜻을 품고도 펼칠 수가 없구나' 하며 한탄하던 도연명의 시구가 생각납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듯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봅니다.

지난주 골프연습장에서 우연히 수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별다른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라도 수년 만에 만난 터라 환한 미소로 반가움을 표하는데, 그분 첫 마디가 팔을 때립니다. "와우, 이제 노인네가 다 되었네" 합니다.

자기 늙은 것은 안 보이고 남 늙은 것만 눈에 띄는 모양입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그렇지요. 세월이 놔두지 않네요. 하며 넘겼지만, 속이 편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맞네요, 많이 늙었네요. 뭐 그럴 수 있는 애기인데 마음에 걸리는 것을 보니 참 속이 좁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식사 자리에서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인이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집이 세지며 남의 말을 안 듣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발끈하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건 아니건 간에, 작은 일에 발끈한 것은 사실이다 보니 노인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방법이 없네요. 노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노인 대신 장년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지요. 장년의 나이가 되어 일어나는 현상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마음이 조변석개로 자주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리적 자제력이 약해진 듯합니다.

아침에는 의기가 올라 정제된 현 상황을 개선할 뭔가를 해보자, 하

며 마음을 다지다가도, 오후가 되면 그 마음이 종족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하루를 보내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또 무슨 고난한 일을 만들려 하는가 하며 편안한 포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정신을 이기는 상황이죠. 아무리 정신을 내세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육체가 따르지 않으면 정신은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껴봅니다. 아침에 멀쩡한 육체에는 정신도 살아나 뭔가 계획을 해보지만, 오후가 되어 육체가 피곤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며 모든 일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은 마쳐야 한다는 정신력이 살아있기에 한번 정한 목표를 이루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젊어서는 육체가 곧 회복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육체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장년이 되면 정신 역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고집을 부리고, 화도 잘 내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육체의 쇠약에 따라 생각도 흔들리며 번덕을 부리고, 결국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지요.

나이가 차면 건강이 정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신도 힘을 잃습니다.

나이 들어 한번 잃은 건강은 다시 회생되기 힘든 일이지요. 무조건 건강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을 안 해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나이가 차면 운동을 해야 간신히 도망가는 건강을 잡아 둘 수 있습니다.

"강한 정신력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 이 격언이 진리라는 것을 새삼 실

감합니다.



HaNa CPC
Coil Processing Center

건설, 기계, 자동차, 전자등 수요처에서 사용하는 HR,PO,GI,CR 제품을 고객이 요청하는 규격으로 공급하는 코일 가공센터입니다.

HaNa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공장건설전문 설계, 시공 감리, 종합 건설사입니다. (건축, 소방, 전기, 변압기, 보수공사, 기계기초)

코일
HR,PO,GI,CR

스켈프
SKELP

시트철판
SHEET STEEL

무늬철판
CHEQUERED

평철
FLAT BAR

H빔
H BEAM

파이프
PIPE

앵글
ANGLE

Shear & Slitter Line 1.5T~14T / W<1900 / COIL WEIGHT<25MT~30MT
Auto Shear Line 3T~17T / W 20~2000 [2차 시트가공]
Laser cutting / 레이저커팅 1T ~ 25T

KOREAN. 093 534 3476 | VIETNAMESE. 078 998 3232 | OFFICE. 028 3636 6658 | FACTORY. 0254 3982 290
EMAIL: lmyk1999@gmail.com | D.04 street, Chau Duc Industrial Zone, Ba Ria-Vung Tau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삶의 에센스

평온함과 프라이버시가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제니티.
베트남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1군에 위치
가구 완비
합법적인 투자

☎ 1800 599 986

설계
Capitaland
Development

- 구매 대금의 30% 지불시 즉시 인수 가능
- 은행 대출 시 최대 5년까지 이자금 지원
- 구매 시 최대 10억동 상당의 선물 증정
- 관리비 면제 및 임대료 지원

이용 약관 적용 됩니다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신짜오베트남
XIN CHAO VIETNAM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광고 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카카오톡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독방 50여곳에 배포

삼성전자, 베트남 반도체 인력 육성 추진...생산거점 초석 다지나



가 베트남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 하며 현지 설비 투자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은 2012년 4월 반도체를 9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교육비의 10~15% 지원과 최소 4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내세워 공장 유치에 나섰다. 인텔을 비롯해 여러 기업의 투자를 가져왔으나 대부분 패키징에 중점을 뒀다. 반도체 제조 분야의 발전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베트남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하면 삼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은 여러 차례 반도체 투자를 주문했다. 우연스런 폭 전 베트남 정부는 2020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해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었다. 지난 3월 브영 دن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박학규 삼성전사 사장은 반도체 투자자 회담에 올랐다. 삼성전사는 베트남에 박닌, 타이응우옌 법인과 호찌민 가전복합단지(SEFH),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SDV), 하노이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누적 투자액은 작년 기준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베트남 총수출액의 약 17.5%를 삼성전자가 책임지다.

(더뉴루 2023.05.26)

베트남 흡연인구 줄어들까... 전자담배 제한·세금 인상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보건부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앞서 보건부는 이달 초 각 시·성의 인민위원회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공안부 등에 공문을 보내 전자담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부는 공문에서 니코틴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 비율을 39%, 여성은 1.4% 밑으로 각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베트남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13~15세 연령대의 3.5%가 전자담배를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Vnexpress 2023.05.26)

말레이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 부패 혐의로 조사받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나스는 이와 관련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임직원들의 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MACC 측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페트로나스는 전 세계 100여국에 진출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포스코 등 여러 한국 회사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26)

고속도로 5개 구간 6월부터 착공 예정



고속도로 5개 주요 구간은 호찌민, 동나이, 빈즈영, 퐁안을 통과하는 76km에 걸쳐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75조 3000억 VND이며, 2021~2025년 기간 동안 국가 예산에서 61조동, 2026~2030년 기간 동안 14조3000억동이 투입될 예정이다. 착공 예정인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메콩 삼각주의 차우독-속짱-간토 고속도로, 남부의 간호아-부은마뚜엣 고속도로, 호찌민 외곽의 비엔호아-붕라우 고속도로, 호찌민 제 3순환도로, 하노이 제 4순환도로 등 5개 구간이다. 차우독-

컨터-속짱 프로젝트는 메콩 삼각주 안정성 차우독사에서 남부 속짱성 트란데 지구까지 188km가 넘는 길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44조7000억 동(19억 달러)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비 투입 구간이다. 간호아-부은마뚜엣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117km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 예산에서 약 22조 동이 투입될 예정이다. 4~6차선 비엔호아-붕라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53.7km에 걸쳐 진행되며, 총 투자비는 17조8300억 동이 넘는 민간구간이다. 호찌민 제 3순환도로는 호찌민, 동나이, 빈즈영, 퐁안을 통과하는 76km에 걸쳐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75조 3000억 VND이며, 2021~2025년 기간 동안 국가 예산에서 61조동, 2026~2030년 기간 동안 14조3000억동이 투입될 예정이다. 착공 예정인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메콩 삼각주의 차우독-속짱-간토 고속도로, 남부의 간호아-부은마뚜엣 고속도로, 호찌민 외곽의 비엔호아-붕라우 고속도로, 호찌민 제 3순환도로, 하노이 제 4순환도로 등 5개 구간이다. 차우독-

(Vnexpress 2023.05.27)

신한은행 베트남법인, 주택·자동차 대출 우대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 베트남법인이 자동차·주택 대출 패키지를 선보였다고 더뉴루지가 25일 보도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대출·주택담보대출 우대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

다. 신한베트남은행 연 10.59% 금리로 차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주택대출의 경우 기간별로 연 7~10%대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46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2021년 기준 총자산·순이익 등 재무실적 부문 외국계 은행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금융 전문자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매거진 선정 '베트남 최우수 외국계 은행'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또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주최한 '은행 산업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에서 디지털 전환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더뉴루 2023.05.25)

CJ비나아그리, 베트남서 입지 탄탄...사료기업 '톱3'



CJ제일제당 자회사 CJ비나아그리(CJ Vina Agri)가 베트남 사료기업(Top 10 prestigious animal feed companies in 2022) 톱3에 포함됐다고 더 뉴루지가 25일 보도했다. 25일 베트남 시장조사기관 베트남 리포트(Vietnam Report)는 평판이 우수한 사료기업 3위로 CJ비나아그리를 선정했다. 베트남 리포트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재무제표 분석 △혜택 업체 관련 언론 보도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순위를 매겼다고 전했다. CJ비나아그리는 베트남 사료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물론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펼

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높이 평가받았다. CJ비나아그리가 베트남 업계 내에서의 입지를 공고화하는 모습이다. CJ비나아그리는 "지난해는 축산업이 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2년 연속으로 우수 평판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이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영진이 보여준 리더십, 구성원 전체가 펼친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CJ비나아그리는 작년 6월 호찌민 시 북쪽에 자리한 꾸찌현(Cu Chi District)에 1300㎡ 규모의 방장육 가공 콤플렉스를 조성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공장에는 한 개의 아동 라인, 두 개의 혼합 라인, 콜드체인시스템과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등이 설치됐다. CJ비나아그리는 미트 마스터(Meat Master) 브랜드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트 마스터 제품은 축산농가와 테이블을 잇는 3F 모델(Food - Farm - Food)을 바탕으로 생산된다. 제품은 △레프(Leop) △킹푸드(King Food) △샤크 마켓(Shark Market) △CS25 등 유명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다.

(더뉴루 2023.05.25)

미 하원 '베트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법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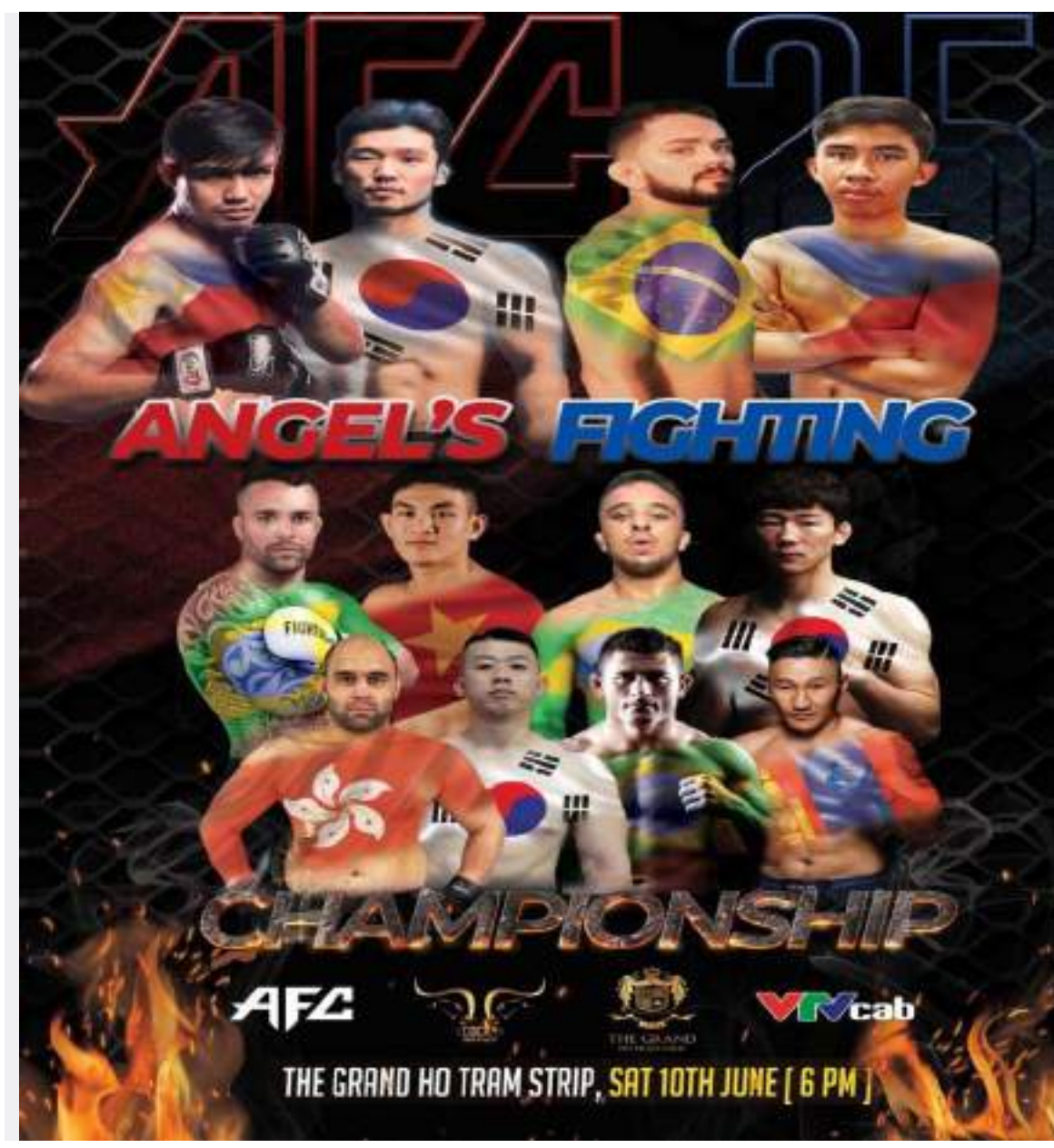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 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서명을 거쳐야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가 24일 보도했다. 미 하원이 22일 본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용맹 법안'(VALO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민후당 이 의원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서명을 거쳐야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 국민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의회에산국에 따



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 보훈 는 방식으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 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 게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로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 제공될 예정이다. (VOA 2023.05.24)

'범죄도시'3 출연한 정찬성 수제자 흥준영, 베트남서 열리는 AFC 25 메인 매치 출격...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 노린다"



엔젤스파이팅챔피언십은 오는 6월 10일 호찌민시 근교 더 그랜드 호캉 스트립 리조트에서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25'를 개최한다고 5월 25일 공개했다. 메인 매치는 정찬성의 수제자 겸 AFC 페더급 챔피언이자 범죄 도시 3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흥준영의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 도전 이다. AFC는 '키다리 아저씨' 최홍만,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울버린' 배명호, '입식격투기의 상징' 노재길, '죄소' 문기범, '슈퍼무키' 송영재, '트루파이터' 이대원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격투 단체다. 2023년 AFC는 작년에 이어 공격적인 대회 진행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서 AFC 21을 개최하면

서 한국 격투기 단체 증가장 투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C는 앞으로도 베트남 끝먼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 다. 이번 AFC 25의 타이틀 매 치는 흥준영의 라이트급 잠 정 타이틀 도전이다. AFC의 페더급 챔피언인 그는 두 체 급 타이틀 석권에 도전한 대 회만 그가 승리하면 베트남 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지 서 열린 격투기 대회서 처음 난 3월 베트남 대회 개최 이 으로 두 체급 챔피언이 탄생 는 오는 6월 다시 한 번 베 트로 호평을 받고 있는 흥준영 남 무대에서 한류 격투기 붐 은 정찬성의 수제자로도 유 조성에 나선다. AFC는 6월 명하다. 실제로 그를 응원하 기 위해서 정찬성이 베트남 월, 9월, 12월 총 울 한해 7개 까지 찾아와 든든하게 뒤를 의 넘버링 대회를 목표로 하 지켜줄 계획이다. 세컨으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 격투기 스승 정찬성이 참여하는 만 큼 흥준영의 두 체급 석권 도 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인기 화제작 범죄 도시 시 미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흥 리즈 최신작에도 출연한 흥 을 통해서 한국 최고의 격투 준영이 정찬성의 지원을 바 을 통해 한국 최고의 격투 기 단체로 자리잡도록 하겠 다"고 선언했다. (엔젤스파이팅챔피언십 2023.05.25)

이스토어가 한다

뉴질랜드 햇단감
미국산 체리 블루베리

직수입판매

FRESH FRUITS
카카오톡:KG531







신짜오베트남 부설 대경컨설팅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선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